

A-3 The Strip Gingival Autograft

박종범*, 임성빈, 정진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부착치은은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각화조직으로 하부 치조골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다. 부착치은은 저작 및 칫솔질 시 등 기능적 외상에 대하여 치조점막 보다도 저항성을 가지고, 가동성의 유리 치은 및 치조점막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한다.

부착치은의 폭은 영구치열에서 1mm에서 9mm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착치은이 건강한 치은을 위해 필요한지는 불명확하다. 구강위생이 좋은 사람에서는 1mm 이하의 부착치은에서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보철 치료, 교정 치료, 근육 소대 부착 및 급격하게 퇴축이 진행되는 경우와 같이 손상 받기 쉬운 부위에서는 건강한 부착치은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1963년 Bjorn이 Free Gingival Technique을 이용한 부착치은의 증가를 소개한 후, 이 술식은 부착치은의 폭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부착을 제거해 주며, 구강 전정을 넓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전 가능한 시술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술식은 수여부가 넓은 경우에는 공여부에 큰 손상부위가 남아 술 후 통증과 출혈이 빈발하고 치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공여부의 손상부위를 보다 줄일 수 있는 strip치은자가이식편을 이용한 술식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strip치은자가이식편은 2mm폭으로 가능한 얇게 채득하여서, 공여부위의 동통 및 출혈이 적고 치유기간이 짧아서, 2개 치아 이상의 넓은 부위에서도 부착치은의 증가를 위해서 사용이 용이하였다.

이에 보철 치료, 교정 치료 전의 부착치은 확보를 위한 case와 자연치에서 급격한 퇴축을 방지하기 위한 case, 그리고 implant second surgery시에 abutment 주위의 keratinized gingiva 확보를 위한 case에서 환자에게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양의 부착치은을 얻은 결과를 보였기에 임상례를 보고하는 바이다.